

# 페리클레스의 추도사에 나타난 소통의 지혜

이 상 철  
성균관대 학부대학 교수

- I. 서론
- II. 페리클레스 추도 연설의 배경
- III. 아테네 민주정체의 가치와 이념
- IV. 말과 업적
- V. 결론



# 페리클레스의 추도사에 나타난 소통의 지혜

## I. 서론

우리는 흔히 명연설이라고 하면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1809-1865)의 게티즈버그 연설과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1929-1968) 목사의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라는 연설을 먼저 떠올린다. 현대의 많은 명연설은 그리스와 로마의 명연설을 기초로 하고 있다. 스피치 학자들은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 역시 5~6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페리클레스 추도 연설을 273자의 단어로 줄여 놓은 것이라고 한다.<sup>1)</sup> 페리클레스는 2500년 전 아테네 장병들의 전몰을 추도하기 위해 연설을 하였는데 이 연설의 내용은 물론 배열 구조, 어구, 어휘와 수사 기법은 수많은 현대 연설가들에 의해 활용되고 있으며 추도 연설은 물론 명연설의 모태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피와 땀(Blood and Toil)”으로 헌신하자는 페리클레스의 명구는 제2차 세계대전에 임하는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 1874-1965)의 “피, 땀, 눈물, 그리고 노력(Blood, Toil, Tears and Sweat)”이라는 명연설의 기초가 되었으며, ‘가난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가난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페리클레스의 명구는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 1882-1945) 대통령의 취임사인 “두려움 그 자체가 두려움(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라는 명연설의 기초가 되었다.

현대 정치인들은 페리클레스가 추도 연설에서 남긴 명언과 명구는 물론 이 연설에서 언급한 민주정체의 우월성, 법과 시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의 역할, 신에 대한 감사, 선조에 대한 찬사, 전몰자들의 희생정신, 유족에 대한 격려 등에 대한 내용을 연설에 자주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이 연설에서 강조한 민주정

1) Willis G., 1997. 『링컨의 연설』, 권혁 역(돋을 새김). Willis Gary는 이 저서를 쓰기 몇 십 년 전부터 스피치 학자들은 페리클레스의 추도 연설과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과의 관계를 밝혀왔다.

체의 장점과 이념은 정치학 개론 교재의 1장, 민주주의의 기원을 서술하는 단원에서 거의 빠짐없이 소개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페리클레스의 추도연설이 왜 그리고 어떻게 현대사회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명연설로 평가받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 II. 페리클레스 추도 연설의 배경

그리스 도시국가 연맹들은 페르시아 전쟁(BC 492-449)에서 승리한 후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아테네의 지나친 지배와 간섭에 불만을 품은 도시 국가들이 스파르타와 연맹을 맺으며 기원전 431년부터 404년까지 무려 28년 동안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벌어졌다. 그리고 아테네는 전쟁 첫해 겨울인 431년 펠로폰네소스 전쟁 전몰장병들의 첫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다. 이 장례식에서 페리클레스는 추도 연설을 하는데 그 내용을 투키디데스(Thucydides, BC 460?-400?)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기록으로 남겼으며 당시의 장례 상황도 상세히 전하고 있다.<sup>2)</sup> 아테네 국장의 전통에 따라 천막 안에 망자들의 시체를 3일간 안치하고 친지들이 제물을 가져와 곡을 하며 묘지로 향했다. 삼나무관에 사체의 유골을 넣고 각 부족 당 운구 수레 1대가 배정되어 당시 10개 부족의 수레 10대가 각 부족의 전사자를 싣고 갔다. 그리고 수습하지 못한 채 행방불명된 전사자들을 위한 빈 삼나무관을 실은 수레 운구 하나가 동행하였다. 각각의 수레는 원하는 희망자가 끌고 그 뒤를 가족과 친지들이 곡을 하며 운구 행렬을 따랐으며 아테네 시외 교외 가장 아름다운 곳에 전몰자들을 안장하였다.<sup>3)</sup> 흙을 다 덮고 나서 시민들의 추앙을 받는 덕망 있는 인물이 전몰자들을 위한 조사를 바쳤다. 페리클레스는 높은 연단에 올라가 전몰자들의 가족과 친지 그리고 아테네 시민들 앞에서 연설을 시작하였다.

2) 이 글에서는 박광순, 2011,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상권』 (범우), 170-181쪽을 기본 텍스트로 하고, Thucydides, 1954, *The Peloponnesian War* (Penguin Books)를 번역, 활용, 의역하였다.

3) 장지는 우리의 국립묘지에 해당하는 아테네시 북서쪽 성벽 밖 케라메이코스(Kerameikos)이다.

페리클레스는 기원전 494년 출생하였으며 461년 민주정당의 대표가 되어 30여 년 간의 공직 생활을 하면서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페르시아 전쟁에서 파괴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신전을 복원하였으며 전 그리스 도시국가의 단결을 강조하였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과 아크로폴리스를 재건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유형의 유산을 남겼다. 정치인인 페리클레스는 문학, 예술과 철학에도 관심이 많아 당대 지성인들과의 교류도 활발하였으며 수사학자인 아낙사고라스와 친분이 두터워 그로부터 수사학을 배웠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나고 3년 후인 기원전 429년에 질병으로 사망한다.

### Ⅲ. 아테네 민주정체의 가치와 이념

이 연설의 구성은 서론, 아테네 민주주의의 장점과 찬미, 전몰장병들의 업적과 칭송, 그리고 결론으로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구성은 아테네 민주주의의 숭고한 이념과 가치가 전쟁에 의해 위협 당하자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것이다. 링컨의 게티즈버그 추도 연설도 같은 배열을 취하고 있다. 페리클레스는 서론에서 연사의 겸손과 진정성을 강조하며 자신의 위치를 최대한 낮춘다.

예로부터 이런 장례 연단에 선 많은 연사들은 관례에 따라 전몰장병들을 추도하며 장병들을 칭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관례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누워 있는 전몰장병들은 용맹한 행동과 업적 그 자체로 존엄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업적 자체가 명예이며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들이 보여준 용맹한 행동과 덕행이 연사 개인의 추도 연설이 훌륭하다거나 서투르다고 하여 이를 통해 판단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몰장병들의 삶과 업적을 지나치게 칭송하여도 안 되며 또한 칭송이 부족해서도 안 됩니다. 장병들을 사랑한 가족이나 친지들은 그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로도 그들의 업적과 덕행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고귀한 생명을 바쳐 이루어 놓은 숭고한 업적 앞에 몇 마디 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소박하게 표현하고 있다. 추도 연설에서 연사의 위치를 겸손하게 낮

추는 기법은 연사와 청중 간 공감의 유대를 강화하는 기법이다. 스피치 학자들은 연설에서 연사의 위치나 입장을 규정하는 기법을 ‘페르소나(Persona)’라고 한다. 페르소나란 주어진 연설에서 자신이 입장이나 위치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연사는 자신을 ‘권위’있는 위치로 설정하기도 하고 어떤 연사는 자신의 위치를 ‘선도자’나 ‘계몽가’로 표현하기도 하며, 어떤 연사는 자신을 청중보다 ‘낮은 자세’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국방정책 관련 연설을 할 때는 국가의 통수권자로 권위적인 입장을 취하지만, 빌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이 모니카 르윈스키(Monica Lewinsky)와의 스캔들 관련 연설을 할 때는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낮추며 사과하는 것을 연사의 페르소나라고 한다. 페리클레스는 추도 연설에서 연사의 페르소나에 겸양과 낮춤이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추도 연설에서는 망자가 이루어 놓은 업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연사 자신은 연설의 서론에서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아야 한다. 링컨은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일인칭 ‘I’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낮춤형’ 혹은 ‘그림자’ 페르소나 기법은 이후 추도 연설에 자주 나타난다.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들의 피와 땀으로 이 땅을 일구며 우리들이 영광스럽게 향유하는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위대한 국가를 건설하여 평화의 시기에도 전쟁의 시기에도 우리들에게 풍요롭고 역동적인 삶의 자원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침공에 승리한 적들의 업적을 여기에서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 우리들을 위대하게 만들고 있느냐 하는 것이며 그런 내용이 오늘 가장 합당한 주제입니다.

페리클레스가 추도 연설에서 사용한 어휘나 어구는 후세 정치인들의 명연설에 자양분을 제공하였다. 페리클레스가 언급한 ‘피와 땀(Blood and Toil)으로 일군 이 땅’이란 어구는 윈스턴 처칠에 의해 다시 태어난다. 처칠은 수상으로 취임한 1940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자신은 “국가를 위해 피, 땀, 눈물 그리고 노력”을 다 받치겠다고 선언하였고 그의 취임연설은 “피, 땀, 눈물 그리고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명연설의 반열에 올라 있다.

이어 페리클레스는 다음 단락에서 아테네 민주주의의 장점을 강조하기 위해 스파르타의 권위주의와 비교하는 대구법과 대조법을 사용하여 후세 민주주의

이념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우리 정치 체제는 다른 나라를 모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정치 체제를 본보기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체제의 권력은 소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것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정치권력이 다수로부터 나온다는 명구는 루소와 몽테스키외의 근대 사상가들의 저서에도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현대 민주지도자들의 연설에 단골 메뉴로 인용되고 있다. 또한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권력의 원천을 명시한 주권재민(主權在民) 조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어서 페리클레스는 민주사회에서 법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과 기회의 평등을 강조한다.

사적인 분쟁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공직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발탁하거나 진급시킬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의 계층과 같은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에 따릅니다. 또한 국가에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가난 때문에 배제되지 않습니다. 공공 생활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방식은 우리의 사생활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간다고 간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웃들을 감시하지도 않으며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고 그들에게 언짢은 눈초리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사생활은 자유롭고 개방적입니다만 공적인 사안에 관해서는 법을 준수하며 판사를 존중합니다. 준법이야말로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자존감입니다. 우리는 공공질서를 위한 성문법을 존중하며 또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불문율을 지키고 이런 불문율을 어기는 것을 수치로 생각합니다.

페리클레스는 법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 계층과 같은 ‘신분에 의한 사회’가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 의한 사회’를 만들어 기회의 균등을 보장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본 전제라고 주장하였다. 법은 시민들의 권리와 사생활을 위해 존재하며 또한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신분과 계급에 의한 사회가 아니라 능력에 의한 사

회'라고 언급한 페리클레스의 기회 평등에 관한 어구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꿈이 있습니다' 연설에서 '피부 색깔에 의해서가 아닌 개인의 능력에 의해(Not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라는 대구법의 명구로 다시 태어났으며, 현재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적극적 평등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인종, 종교, 성별, 국적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확산되었다. 민주사회에서 법은 평등해야 하며 시민들의 권리와 사생활을 존중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시민들에게 기회의 균등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원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어서 페리클레스는 개방사회와 패쇄 사회를 대조하며 민주정체의 이념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일과를 마친 후에 모든 종류의 여가를 선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 년 내내 정기적으로 다양한 경연과 제전을 즐기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물품들이 우리나라의 항구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세상의 산물들을 자신들의 취향에 맞게 풍요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중략) ... 우리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도 사치에 빠지지 않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면서도 유약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부유함을 과시하지 않고 적절하게 활용하며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가난을 이겨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페리클레스가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을 대조한 내용은 현대의 자유무역 정책을 채택하는 국가 지도자 연설의 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을 통해 시민들이 더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믿는 현대 정치인들의 연설에 자주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페리클레스는 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하면서도 가난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이 더 부끄러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가난을 이겨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라는 구문은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취임 연설에서 명구의 모태가 된다. 1930년대 미국은 대공황에 빠져 가난에 절망하고 있을 때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3년 3월 4일 취임사 서두에서 미국이 겪고 있는 대공황을 가난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두려움(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와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으로 뉴딜 정책을 제안하며 취임연설을 하였다. 대공황과 가난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두려움’이란 명구는 역사가들에 의해 이 연설을 지칭하는 제목이 되었다.

한편 페리클레스는 국방과 안보 정책을 논의하고 아테네의 개방사회를 스파르타의 폐쇄사회와 대조하며 아테네 민주정체의 이념을 설파하였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우리 도시국가는 개방적이기 때문에 적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비밀을 정탐해 가는 경우가 있어도 우리는 외국인들을 추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힘은 비밀 병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진정한 용기와 애국심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스파르타는 어려서부터 혹독한 군사 훈련을 받지만 우리는 이런 훈련 없이 자연스럽게 두어도 그들보다 더 위기에 잘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자연스런 재능과 자발적인 용기로 힘을 기르기 때문입니다. ... (중략) ... 혹독한 훈련을 받지 않아도 법률이나 군기에 의해 강제하지 않아도 서두르지 않고 태연하게 용기를 갖고 위험을 극복합니다. 일단 전열에 서면 훈련에 시달린 자들보다 훨씬 용감하게 위기를 극복합니다. 이런 점이 우리 아테네를 경탄하고 칭송해야 할 이유입니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 민주주의는 참여와 토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민주정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페리클레스는 토론이 절차적 민주주의에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조는 현재 우리 사회의 토론 문화에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우리 시민들은 그들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공적인 사안에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공직자도 사생활에 최선을 다하지만 자신의 사업에 몰두해 있는 사람도 공공의 사안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강점입니다. 우리는 공공의 사안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을 여유 있는 사람이라 하지 않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책을 결정할 때 필수불가결한 비판을 하고 토론 과정을 거쳐 현명한 결정을 합니다. 우리들은 토론이 행동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고 여기지 않으며, 오히려 해야 할 일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미리 토론을 통해 가르침을 끌어낼 수 없는 것이야말로 장애물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가장 나쁜 결정은 충분한 토론과정 없이 성급하게 미래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 IV. 말과 업적

아테네의 가치와 이념을 칭송한 후 페리클레스는 전몰자들은 지하에 묻지만 그들의 업적과 행동은 영원으로 승화시켰다.

이처럼 탁월한 시민들이 있기에 아테네는 위대했으며 또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이런 탁월함을 경이롭게 보듯이 우리의 미래 세대들도 경이롭게 볼 것입니다. 시련을 극복한 시민들의 경이로운 행동은 호메로스의 찬미를 인용하여 잠시 귀를 즐겁게 하는 멋진 표현으로 우리를 위로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말도 그들이 이루어 놓은 공적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육지와 바다를 누비며 용맹한 정신으로 길을 열고 아테네의 성쇠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이토록 위대한 아테네를 위해 이 도시를 위해 고귀하게 싸우며 희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테네를 위해 살아남은 우리가 그들의 업적을 완성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말과 업적이란 대구적 표현은 영어로 ‘Words and Deeds’이며 스피치 관련 저서의 제목으로 자주 활용된다. 링컨은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페리클레스의 말과 업적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을 세상은 주목하지도, 오래 기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용사들이 이곳에서 한 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The world will little note, nor long remember what we say here, but it can never forget what they did here)”라며 한 문장으로 압축하여 재활용하였다. 그리고 링컨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들의 업적을 행동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페리클레스의 논리를 그대로 활용한다. 링컨은 “살아남은 우리에게 남겨진 일은, 이곳에서 싸운 이들이 고결하게 추진해온 끝나지 않은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남은 일은 오히려 ... (중략) ... 신의 가호 아래, 이 땅에 새로운 자유를 탄생시키며, 그리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 지구상에서 죽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It is for us the living, rather, to be dedicated here to the unfinished work which they who fought here have thus far so nobly advanced. It is rather for us...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로 연설을 마무리한다. 그러나 전

물장병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보다 페리클레스나 링컨이 추도 연설에서 한 말이 우리들에게 더 오래도록 기억되고 있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말의 힘은 행동과 업적의 힘보다 때로 강하기도 하다. 어쩌면 추도 연설에서 한 말에 의해 그들의 행동과 업적이 영원히 함께 기억되는 것이다.

아테네에 관해 이토록 길게 이야기한 이유는 ... (중략) ... 살아남은 여러분들은 아테네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지켜보시기 바라고 ... (중략) ... 내가 찬양한 이 도시를 빛낸 것은 오로지 여기에 잠든 사람들의 수훈이기 때문입니다. 이 수훈과 예찬이 여기에서 산화한 사람들의 경우와 같이 서로 완전히 일치하는 예는 헬라스 어디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편안히 쉬게 될 사람들의 최후는 먼저 그 덕에 명성을 주고, 이어서 그것을 영원히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 (중략) ... 목전에 둔 임무를 대담하게 수행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퇴각하여 생명을 보존하기 보다는 대항하여 싸우다 영광스럽게 죽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 (중략) ... 그리하여 그들은 아테네에 어울리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뒤에 남은 사람들의 위험이 보다 적어지길 기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나날이 아테네의 힘을 실제로 체험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 (중략) ... 또 이들 용사들이 아테네에게 준 무상의 보물은 설사 시도하다가 실패하더라도 아테네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 한 마음가짐이었다는 것입니다. ... (중략) ... 그들은 지하에 묻히고 만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름과 행동은 영원히 기억되고 우리들의 언화(言話) 속에서 영원히 기념될 것입니다. ... (중략) ... 무형 무언의 기념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 (중략) ... 이제 성인이 된 그들은 지금 저 피안(彼岸)에서 초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페리클레스는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로 추도 연설을 마무리한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의 깊은 슬픔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예전에는 자신 안에서 찾을 수 있었던 기쁨이 오늘 이후로는 다른 곳에서 찾아내야 할 때, 여러분은 그 추억에 슬픔을 느낄 것입니다. 행복을 모르는 사람은 불행도 쓰라리지 않지만, 오랫동안 익숙했던 행복을 빼앗기는 것은 고통입니다. ... (중략) ... 끝으로 오늘 이후 미망인이 되는 분들의 부덕에 대해 한마디 언급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짧은 권고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성의 본분에서 벗어나지 말며, 좋은 나쁜 남자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것을 무엇보다 금지

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 (중략) ... 여기에 안치된 사람들을 위해 거행되어야 할 의식도 이미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전몰자들과 그 유족에게 자식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아테네가 보증할 것입니다... 그러면 각자 이곳을 떠나기 전에 전몰자들에 대한 슬픔을 충분히 풀고 가시기 바랍니다.

페리클레스는 연설의 말미에 유가족에 대한 격려를 짧게 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여성의 역할을 언급하며 추도 연설 초반에 형성한 겸양과 낮춤의 페르소나를 벗어나 훈시하는 위치에서 말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 학자들은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다. 페리클레스가 미망인이 된 여성들을 격려하지 않고 훈계의 관점에서 말한 것은 당대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당대 여성들은 공적 사안에 대해 참여할 시민의 권리가 없었다. 그러나 재미있는 사실은 페리클레스의 추도 연설이 페리클레스의 정부이자 당대 최고의 여성 수사학자인 아스파시아(Aspasia)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주장이 있다. 플라톤(Platon, BC 427-347)의 『메넥세노스』라는 대화록에서 아스파시아가 페리클레스의 연설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기록하고 있다. 아스파시아는 페리클레스의 정부로 페리클레스가 이혼한 이후 동거하며 두 명의 아이를 낳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아스파시아의 저서는 남아있지 않지만 소크라테스의 대화록에 자주 언급되며 그리스 당대의 최고의 여성 수사학자로 그리스로마의 역사가들은 전하고 있다.

## V. 결론

투키디데스는 “연설을 기록하면서 ... (중략) ... 몇몇은 내가 직접 들은 것이고 다른 것들은 전해들은 것이다. 내가 직접 들은 것이라고 해도 자자구구 기록한다는 것은 내 기억을 회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한 대로 기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투키디데스는 페리클레스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학자들은 그가 직접 그 추도 연설을 들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투키디데스가 그 연설을 듣고 안 듣고를 떠나 페리클레스의 추도 연설은 우리 인류의 중요한 무형 자산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역사가들은 페리클레스 추도 연설에 대해 정치적 관점에서 당시 아테네의 제

국주의적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하기도 한다. 아테네는 페르시아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 델로스 동맹을 중심으로 차츰 제국주의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테네의 제국화는 동맹 도시의 이탈과 함께 스파르타와의 전쟁을 불러왔고 그리스의 많은 도시국가들이 양분되어 불행한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정치학적인 평가이며 연설 평론가들은 페리클레스의 추도 연설이 아테네 민주정체의 우월성에 대한 찬양과 그런 우월성은 전몰장병들의 희생에 의해 세워졌다는 내용 구성은 물론 연설에 나타난 명언과 명구들은 이후 추도 연설의 전범이 되고 있는 훌륭한 연설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페리클레스가 강조한 다수에 의한 권력과 소수에 의한 권력 대조, 법 앞에서의 평등, 사생활 보호, 약자 보호, 능력 위주와 신분사회의 비교, 개방사회와 폐쇄사회의 비교, 시민의 자율성, 토론, 문화생활의 중요성 등 아테네의 이상은 남과 북으로 갈라진 우리나라를 되돌아보게 한다. 페리클레스의 추도 연설은 고대의 훌륭한 유물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연설이다.

아테네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몰장병들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명예를 선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국가를 위해 전사한 장병들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그 국가가 갖고 있는 지향점을 알 수 있다. 6.25 전쟁, 월남 파병 용사, 남북 대치 과정에 전사하는 우리 장병들을 어떻게 대우하는가를 보면 우리 국가 공동체의 지향점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국가적 대사에 지도자는 추도 연설을 통해 공동체의 가치를 재규정하며 슬픔에 쌓인 공동체의 건강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재확립하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하게 해야 한다. 추도 연설의 목적은 말을 통해 전몰장병들의 육신은 하늘로 보내지만 그들의 업적과 정신은 현 공동체의 가치로 남게 하는 것이다. 슬픔과 절망을 회복하고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망자들이 생명을 바치며 추구한 가치를 공동체의 비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한다. 추도 연설의 이러한 기능은 전몰장병들뿐만 아니라 국가 공동체의 천재지변과 같은 대형 사고를 당했을 때, 지도자는 추도 연설을 통해 슬픔을 정화하고 절망을 회복하며 공동체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이 1986년 2월 1일 챌린저호가 폭발하자 당일 저녁 전국 방송으로 슬픔에 잠긴 공동체를 추도 연설을 통해 위로한 것을 들 수 있으며 가장 최근 사례로는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의 2015년 7월

3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흑인 교회 총기 난사 사고 희생자 추도 연설을 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말과 연설의 중요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인식이 약한 우리사회에서 지도자에 의한 세월호 추도 연설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 글을 마친다. 🌅